

## 아동의 진술 역량 및 한계점에 대한 고찰: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이 승 진<sup>†</sup>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최근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같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이 목격자, 피해자 혹은 관련 참조인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험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아동 보고의 정확성은 연령에 따른 아동의 언어적 혹은 인지적 발달 수준에 의해 다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환상적 인물에 대한 믿음 수준 등의 요인들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진술의 신뢰성 이해에 필요한 발달심리학적 접근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외의 아동 발달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령에 따른 아동의 회상 보고 역량과 그에 대한 한계점들을 아동의 진술 능력과 접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 진술을 담당하는 법조계 전문가들 및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진술의 정확성 판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언어발달, 환상적 사고, 시간 개념, 피암시성, 개인차

---

<sup>†</sup> 교신저자 : 이승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Tel : 010-8620-2867, E-mail : sjmagiclif@gmail.com

사법체계에서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학대 혹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아동과 무죄인 용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범행의 실제 가해자를 기소하는데 유용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특히 신체학대, 방임, 성폭력 등의 범죄 사건들은 아동과 피의자 이외의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뚜렷한 가시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의 회상 보고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수 십 년에 걸쳐 아동 증언과 관련된 경험적인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을 통해 관련 실무자들에게 아동의 진술 역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진술의 올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미국국립 아동인간발달 연구소)의 아동 수사면담 지침의 한계점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실증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한편, NICHD 아동 수사면담 지침을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과 다양한 인지 및 사회정서적 개인차에 따른 차별화된 수사면담 절차의 필요성도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학적인 아동 수사면담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연구자들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의 통찰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의 회상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발달적 특성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수사면담의 올바른 실시와 확보된 아동 진술의 정확한 이해 및

해석을 위한 지식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아동의 회상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및 인지적 특성

국외에서는 아동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상에 대한 아동의 지식(knowledge) 수준이나 표상적 능력과 같은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애착의 상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같은 사회-정서적 특성들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광금주와 이승진(2006)이 관련 국외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의 역량, 상상과 실재에 대한 아동의 구별 능력, 사건 발생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근 국외의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 진술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피암시성과 관련하여서도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의사소통 능력

아동 진술의 명료성과 완전성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아동들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 어휘들을 일관성 있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담자들은 확보된 아동 진술을 오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6세 아동의 경우 평균 6-8천개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Clark & Clark, 1977). 한편, 어린 아동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 보고에 적용될 수 있는 어휘 수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활용되는 어휘들도 매우 비서술적인(nondeclarative)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들은 특정 어휘들을 일반 성인이 인식하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아동 자신만이 이해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린 아동일수록 어휘의 통속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만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de Villiers & de Villiers, 1999). 예를 들어, Bruck (2009)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들이 ‘만지다(touch)’ 동사를 일상적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만지다’와 관련된 행동을 보고하는 과제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만지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오히려 ‘문지르다(rub)’ 혹은 ‘할퀴다(scratch)’와 같은 동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회상 보고는 면담시 면담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의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면담자들은 사건 관련하여 면담자가 획득한 정보를 아동이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혹은 확증해 줄 것을 암시하는 유도 질문을 의도치 않게 제공하곤 한다(예;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니? 너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니?). 유도적 질문 이외에도 취학 전 아동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휘들이나 통사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어휘들을 질문에 포함하는 경우 확보된 아동 보고의 정확성은 감소하게 된다(Zajac & Hayne, 2003). 최근 국외에서 아동 수사면담의 실제 현장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학 전 5세 아동부터 15세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학대 피해자의 연령 범위가

매우 넓은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기소측 변호사 모두 아동의 연령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아동의 진술을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Evans, Lee, & Lyon, 2009). 심지어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조차도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못한 어휘들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빈번히 사용하면서 수사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lotnikoff & Woolfson, 2009). 또한 실제 법정에서 사용된 질문들 중에서 6-15세 혹은 그 또래의 아동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전체 질문의 1/3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rennan & Brennan, 1988). 설상가상으로, 취학 전 아동들은 수사면담시 제공되는 복잡한 형태의 질문들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동들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되묻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아동의 높은 응답율은 면담자로 하여금 아동의 이해력을 과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Saywitz, Snyder, & Nathanson, 1999).

아동이 스스로의 이해를 인지하는 이해-감찰(comprehension-monitoring) 기술이나 잘못된 해석을 파악하는 기제들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달한다. 고전적인 발달 연구에 의하면 상위인지 및 상위 언어학적 지식은 5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ywitz, Jaenicke, & Camparo, 1990). 또한 아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응답을 제공하는 경향도 높다. 예를 들어 ‘그(가해자)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닮았어요’와 같은 응답은 상대방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모

른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되지 못한 서술이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인지적 미성숙은 법정 혹은 경찰서에서 면담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적 난제, 즉 수사사건과 관련된 중심적 정보들의 확보 및 확인에 있어 아동의 보고에 의존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면담자들은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임하기 이전에 아동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지, 자신을 잘 모르는 낯선 상대방에게는 어떤 형태의 표현이 적합한지, 사건과 관련된 사물, 사람,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교화 된 서술의 중요성에 대해 사전 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Nelson & Fivush, 2004).

유사하게, 아동 보고의 정확성은 의사소통의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이니?”, “너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고 있니?”, “너의 신체 부위 중 그 사람이 어디를 만졌는지 말해 줄 수 있니?”와 같은 질문이 제시될 때, 나이든 아동들은 면담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린 아동들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네/아니오’식의 간결한 응답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Lamb & Brown, 2006). 이는 어린 아동의 어휘력 한계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고 어린 아동들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전달받는 입장이 아닌 주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사소통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아동들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성인들로부터 요점적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의사소통 형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아동이 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인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따라서 면담자들은 아동에게 면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교화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이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즉 면담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면담자는 어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아동은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7). 또한 면담자들은 아동의 응답을 강요하는 형태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6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은 ‘모르겠다’는 응답은 틀린 응답이라는 편견 때문에 면담자가 제공하는 모든 질문에 적어도 ‘네/아니오’의 응답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Fivush, Peterson, & Schwarzmeuller, 2002). 선행 연구에 따르면, 5-9세 연령의 아동들은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혹은 응답이 불가능한 질문들에조차도 ‘네/아니오’의 응답을 제공하고, 특히 질문의 형식이 선택형 응답을 강요하는 경우(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침이었는지 혹은 저녁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terman, Blades, & Spence, 2004). 심지어 일부 아동들은 질문의 내용이 불가능한 것임을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네/아니오’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Saywitz & Lyon, 2002). 또한 아동들은 면담자가 특정 진술을 선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담자의 의견에 순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자극되어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무관한 혹은 상반된 사실을 진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Melnyk, Crossman, & Scullin, 2007).

보편적으로,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술자로서 보다 세련된 언어적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는 곧 진술의 양과 진술된 정보의 구체성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취학 전 어린 아동들은 상위 인지적 사고 및 언어적 능력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중심적 정보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면담자는 이와 같은 아동의 언어적, 인지적 한계와 의사소통의 특성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피해자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어휘와 질문으로 구성된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 사실과 환상의 구별 능력

우리는 주변에서 어린 아동들이 상상 속의 친구나 TV 만화 주인공과 함께 가장 놀이(pretend play)를 하는 상황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아동은 6세 이상이 되면 상상한 일과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Roberts, 2000). 그러나 6세 이하의 아동도 특정 상황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동들도 상상 속의 친구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Shawber, & Mannering, 2009). 한편, 어린 아동들이 상상과 실제의 구별을 실패하는 것은 사건의 정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들에게는 ‘놀이동산에 가는 일’

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포함된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는 일과 같이 부정적 정서가 포함된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eci, Loftus, Leichtman, & Bruck, 1994). 또한 3-5세의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가가 다른 사실적 사진과 환상적 사진들(예: 부정적 정서의 사진: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 사진 vs.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야단치고 있는 사진, 혹은 긍정적 정서의 사진: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 사진 vs. 사람 옷을 입은 쥐가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제시하고 어떤 사진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사건을 보여주는지 물어보았다. 사진이 표현하고 있는 사건의 ‘사실성(reality)’과 무관하게 아동들은 긍정적 정서의 사진들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더 많이 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ick & Quas, 2006).

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 아동들이 환상적 인물을 창조하고 환상적 인물과 가장 놀이 활동을 즐겨 한다고 해서 환상적 인물의 사실성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Carrick과 Harris(2007)의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진들을 아동에게 다시 제시하고 정답을 맞추는 경우 아동이 좋아하는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어린 아동들은 사실적 사진과 환상적 사진을 정확하게 구별하였다. 이는 어린 아동들도 현실 속의 인물과 상상 속의 인물을 구별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을 제공하고(예: 아동의 치아를 ‘치아 요정’이 가져가 버리는 사건) 며칠 후 그 경험에 대해 아동의 회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상적 존재 즉 ‘치아 요

정'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아동, 요정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아동, 요정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보통 수준인 아동 등 요정의 존재에 대한 믿음 정도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rincipe & Smith, 2008).

결론적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환상 속의 인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인물들과 가장 놀이를 즐겨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Byrne, 2005). 따라서 면담자는 아동이 환상적 인물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동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한 보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면담자로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상상 인물에 대한 아동의 믿음이 아니라 면담시 아동의 회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재연한다거나 장난감이나 해부학 인형들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아동이 평소 갖고 있는 상상 속의 인물이나 환상적 사고가 오히려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다 (Thierry, Lamb, Orbach, & Pipe, 2005).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부가적 도구나 관련 단서의 사용은 세심한 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발생한 일을 상상해 보게 하거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라는 지시 역시 아동으로 하여금 사건과 무관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Schreiber, & Parker, 2004).

### 시간개념의 발달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과거 사건을 회상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의 하나는 그 사건이 '언제' 발생하

였는지를 기억해 내는 일이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정에서도 진술의 구체성에 대한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당일의 구체적인 시간 정보가 포함된 진술이 신뢰성 있는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피아제가 언급한바와 같이(Piaget, 1971) 시간개념은 매우 천천히 발달되는 인지 능력의 하나로 8-1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시간개념이 정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rtas, 2001). 물론 다양한 시간 개념들이 동시에 발달되거나 모두 동일한 단계를 거쳐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세 아동의 경우 하루 중 특정 행동 혹은 경험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예: '아침', '점심', '저녁') 구별할 수 있으나 요일, 달, 계절과 같은 하루보다 긴 시간 개념은 구별하지 못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4-8세 아동에게 두 가지 사건 중 하나는 1주일 전에 다른 하나는 7주 전에 발생한 것을 회상하도록 하고 그 사건 발생 당시의 계절, 달, 요일, 시간 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4세 아동의 경우 사건의 순서와 그 날의 '때'와 관련된(예: 낮 혹은 밤) 회상만이 가능하였으나 6세 이상의 아동들은 하루보다 긴 시간 개념(예: 요일, 며칠 혹은 몇 주 전)의 회상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1992). 그러나 어린 아동들이 사건 발생의 요일 혹은 날짜에 대해 정확하게 회상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한 일들의 전후 판단에 관한 회상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 Lyon, 2005). 한편, 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간 관련 어휘들의 이해력을 살펴본 결과, 3세 아동들은 친숙한 일상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전후나 시간을 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경우는

시간과 관련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 Seely, 1976).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의 경우 10월은 11월 이전의 달 혹은 11월은 10월보다 이후의 달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사건이 발생한 달이 10월인지 11월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일상적 활동들의 일련의 순서를 회상하는 것 예를 들어, TV 시청이 저녁 식사보다 먼저 일어났고 그 사건은 TV 시청과 저녁 식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2000).

이와 같은 시간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아동은 수사면담 시 사건 발생의 시간과 관련된 면담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실제 수사면담 자료를 대상으로 아동의 시간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4-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250건의 수사면담을 분석한 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Orbach & Lamb, 2007). 그 결과에 의하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 사건의 시간과 관련된 어휘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중 시간적 정보로는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순서’에 대한 것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10세 정도에 이르면 시간과 관련된 어휘가 극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10세 정도에 이르면 시간적 정보의 중요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면담자는 사건 발생 시간 및 사건의 지속 기간 등 시간적 정보에 대한 질문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연령에 따른 시간 개념의

발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피암시성

삼십 여 년 전 미국 아동보호기관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 사건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이는 곧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학술 연구자들의 학문적 동기를 자극하였다. 실례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이든턴 지역(Edenton, NC)에 설립된 아동보호센터에서 담당 선생님들에 의한 아동 성학대 사건이 신고되었고 당시 경찰관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센터에 소속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반 면담에서는 성학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수의 아동들도 10개월에 걸친 반복된 면담 후에는 자신들이 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실시된 면담의 구체적인 기록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경찰관들의 잘못된 수사면담 방식이 기자와 학술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관들은 면담시 ‘아저씨는 경찰이고 경찰관은 거짓말을 하는 나쁜 아이들을 얼마든지 혼낼 수 있어’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들이 면담자의 권위에 굴복하여 경찰관이 기대하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Ceci & Bruck, 1995). 또한 경찰관들은 센터 선생님들은 ‘나쁜 사람’ 혹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면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은 모두 나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래 압력을 이용한 아동의 동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의 성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찰도 있었다(Ceci &

Bruck, 2006). 결국 이 사건의 면담은 반복 질문, 암시적 질문, 면담자의 권위 이용, 또래 압력 이용, 특정 응답에 따른 보상 혹은 위협 제공과 같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곧 피암시성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면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Malloy & Quas, 2009).

아동의 피암시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은 3-4세의 어린 아동들도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Goodman, Bottoms, Schwartz-Kenney, & Rudy, 1991). 그러나 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취학 전 어린 아동들은 유도 및 암시적인 질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Strange, Garry, & Sutherland, 2003). 게다가 일부 아동들은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매우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Quas, Malloy, Melinder, Goodman, Schaaf, & D'Mello, 2007). 대표적인 연구에 의하면, 3-6세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거짓 사건, 예를 들어, 손가락이 덧에 걸려서 병원에 갔던 경험들에 대해 질문하면 어린 아동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창의적인 서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면담자가 면담 과정에서 주입한 암시적 정보들이나 아동이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혼합되어 생기는 오류 현상으로 볼 수 있다(Ceci & Bruck, 1995).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가 반복적으로 오정보를 제공할수록, 아동은 암시적 정보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Brady, Poole, Warren & Jones, 1999). 그러나 어린 아동들도

본인이 직접 사건을 경험한 경우 사건을 목격하거나 단순히 사건에 대해 들은 경우에 비해 암시적 질문에 저항할 수 있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obey & Goodman, 1992). 즉, 사건의 참여 여부는 피암시성의 저항력(resistance)을 좌우하는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취학 전 아동들은 자신의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Endres, Poggenphol, & Erneb, 1999). 특히 선택형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아동 응답의 번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개방형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아동은 면담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아니오'의 응답이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이전 응답이 틀렸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선택형 질문에 따른 사전 응답의 번복 가능성은 어린 아동 즉, 3-4세 아동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났다(Lyon, Malloy, Quas, & Talwar, 2008).

요약하자면,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권위나 사회적 지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면담자의 암시 및 유도적 질문들에 잘 저항하지 못한다. 또한 어린 아동들은 질문의 의미나 면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면담자, 즉 성인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믿음으로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쉽게 동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동 면담은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착수하기 이전에 면담자가 제시하는 질문의 내용을 언제든지 아동이 직접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자가 아닌 아동 본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

고 있으며, 면담자의 질문에 언제든지 ‘모른다’는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 수사면담 단계에서는 선택형 질문, 암시적 질문, 유사한 질문의 반복을 최대한 절제하고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확보된 진술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피압시성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전체논의

본 논문은 아동 진술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요구되는 아동 발달의 특성들을 기초 및 응용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아동의 의사소통적 역량, 사실과 환상의 구별 능력,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이해, 피압시성 수준과 같은 요인들 이외에도 면담에 임하는 아동의 동기, 면담의 적응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면담자는 사전에 아동의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개인차 특성에 관한 정보는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 사이에서도 과거 사건의 회상 정도에 왜 차이가 있는지, 혹은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특정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왜 더 취약한가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다(Blandon-Gitlin & Pezdek, 2009).

아동 개인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지능은 과거 사건의 회상 정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Elischberger & Roebbers, 2001). 특히 나이든 아동(8-10세)의 지능과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수준과의 상관은

어린 아동들(3-5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ebbers & Schneider, 2001).

한편 일부 연구들은 아동의 서술적 능력과 피압시성 수준과의 정적 관계성을 증명하였다(Bruck & Melnyk, 2004). 다시 말해, 표준화된 언어 능력 검증에서 높은 점수의 아동들이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나 오정보가 포함된 질문에 보다 잘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lkofsky & Klemfuss, 2008). 또한 WISK-3 어휘 점수 역시 아동의 회상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Pipe, 2003). 이처럼 표준화된 언어 능력 점수는 암시적 질문에 저항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서술 능력 검사에 대한 점수와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보고의 오류 정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Kulkofsky, Wang, & Ceci, 2008). 이는 아동의 서술 능력이 높을수록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보고될 가능성도 높음을 함의한다. 결국 의사소통이 원활한 아동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신뢰로운 진술 여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부모와의 애착 상태와 아동의 기질적 요인들은 어떤 아동들이 면담자와의 라포 형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 어떤 아동들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암시적 정보에 더 취약한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 상태와 아동의 기질은 정보 처리 과정, 즉 정보가 부호화되고 조직화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출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에 비해서

고통스런 진료와 같은 막중한 스트레스가 유발된 경험을 회상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Quas, Batterman-Faunce, Riddlesberger, & Kuhn, 1997). 어린 아동일수록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인지 용량은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범죄 사건 경험 시 유발되는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지적 자원들을 소모하게 된다. 이는 결국 주위 환경이나 경험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를 방해하고 결국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상태는 기억 인출 환경, 즉 낯선 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낯선 면담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많은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곧 정보의 인출에 필요한 주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Bottoms, Quas, & Davis, 2007). 이처럼 아동 진술의 신뢰성은 부모와의 애착 특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들은 면담자의 선택형 질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ebers & Schneider, 2001). 다양한 기질적 특성들 중 특히 '다루기 용이함(manageability)' 특성은 해부학 인형이나 신체 해부도, 장난감 등 부가적 도구가 사용된 면담에서 진술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루기 쉬운 기질의 아동들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면담 도구들이 갖는 한계인 암시적 단서들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성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Greenhoot, Ornstein, Gordon, & Baker-ward,

1999). 또한 '끈질김(persistence)' 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아동들은 수사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따라서 전체 회상의 양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reenhoot et al., 1999).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기질적 특성들 중 '주의통제력' 즉,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 규제를 위해 주의를 이동하고 다시 집중할 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아동은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진술의 정확성이 '주의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한편 대표적인 아동 기질 평가 척도인 TABC(Temperament Assessment Behavior Checklist)를 활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정서성(Emotionality)', '적응성(Adaptability)', 이 3가지 주요인들이 3-5세 아동의 회상 능력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여주었다(Gordon, Ornstein, Nida, Follmer, Creshaw, & Albert, 1993). 특히 이와 같은 기질적 특성들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진료(예; Voiding cystourethrogram: 아동의 요도에 도관을 집어넣는 매우 고통스런 의료 절차)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rritt, Ornstein, & Spicker, 1994). 반면, 얼굴에 난 상처 치료와 같은 가벼운 의료 진료에 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들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으나(Burgwyn-Bailes, Baker-Ward, Gordon, & Ornstein, 200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특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pe & Salmon, 2002). 이는 결국 사건 경험 당시 유발된 스트레스 수준이 정보의 인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성 즉, 스트레스 사건에 대

처하는 아동의 능력, 부정적 정서를 해석하는 아동의 특성 등이 경험한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아동의 개인차 특성들은 아동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실무자들 및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라포 형성의 정도, 수사면담의 소요 시간, 면담의 질문 구성 등을 차별화 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아동의 개인차 변인과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들이 실제 범죄 사건의 피해자 아동의 공통 특성들을 많은 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지능 수준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고, 기질적으로 수줍음을 많이 보이는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생활적인 면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속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의 다양한 개인차 특성에 따른 수사면담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 진술의 역량과 한계점에 대한 수십 년간의 학술 연구들은 현장에서 면담자가 가능한 한 신뢰로운 아동 진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확보된 아동 진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범죄사건 발생의 실증적 증거로서 아동 진술을 해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왔다. 선행 학술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에 의하면 아동 진술은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한 사건의 특성,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적 수준, 다양한 개인차 특성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 특성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린 아동들도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을 경험한 아동들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보된 진술이 사법체계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면담자는 아동의 발달적 역량과 한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완벽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면담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Blandón-Gitlin, I., & Pezdek, K. (2009). Children's memory in forensic contexts: Suggestibility, false memo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B. L. Bottoms, C. J. Najdowski, & G. S. Goodman (Eds), *Children as Victims, Witnesses, and Offenders: Psychological Science and the Law* (pp.57-80). New York: Guilford.

Bottoms, B. L., Quas, J. A., & Davis, S. L. (2007). The influence of interviewer-provide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ggestibility, memory, and disclosures. In M-E. Pipe, M. E., Lamb, Y. Orbach, & A-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135-15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Brady, M. S., Poole, D. A., Warren, A. R., & Jones, H. R. (1999).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yes-no questions: Patterns and problem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 47-57.
- Brennan, M., & Brennan, R. E. (1988). *Strange language: Child victims under cross examination* (3rd ed.). Wagga Wagga, New South Wales, Australia: Riverina Literacy Centre.
- Brown, D. A., & Pipe, M-E.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vent memory reports and the Narrative Elaboration Techniqu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195-206.
- Bruck, M. (2009). Human figure drawings and children's recall of touch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5, 361-374.
- Bruck, M., & Melnyk, L.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suggestibility: A review and synthesi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947-996.
- Burgwyn-Bailes, E., Baker-Ward, L., Gordon, B. N., & Ornstein, P. A. (2001). Children's memory for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fter one year: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on recall and suggestibilit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S25-S48.
- Byrne, R. M. J. (2005). *The Rational Imagination: How People Create Alternatives to Re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Carrick, N., & Quas, J. (2006). The effects of discrete emotions on young children's ability to discern fantasy and re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2, 1278-1288.
- Ceci, S. J., & Bruck, M. (1995). *Jeopardy in the Courtroom: A Scientific Analysis of Children's Testimony*. Washington, DC: APA Books.
- Ceci, S. J., & Bruck, M. (2006). Children's suggestibility: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4, 247-281.
- Ceci, S. J., Loftus, E. F., Leichtman, M. D., & Bruck, M. (1994). The possible role of source misattribution in the creation of false beliefs among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Hypnosis*, 42, 304-320.
- Clark, H. H., & Clark, E. 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de Villiers, J. G., & de Villiers, P. A. (1999). Language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M. E.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4th edition. pp.313-373). Mahwah, NJ: Erlbaum.
- Elischberger, H. B., & Roeber, C. M. (2001). Improving young children's free narratives about an observed event: The effects of nonspecific verbal promp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2), 160-166.
- Endres, J., Poggenpohl, C., & Erben, C. (1999). Repetitions, warnings, and video: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mponents in preschool children's suggestibility. *Legal & Criminological Psychology*, 4, 129-146.
- Evans, A. D., Lee, K., & Lyon, T. D. (2009). Complex questions asked by defense lawyers but not prosecutors predicts convictions in child abuse trials. *Law & Human Behavior*, 33, 258-264.
- Fivush, R., Peterson, C., & Schwarzmueller, A. (2002). Questions and answers: The credibility of child witnesses in the context of specific questioning techniques. In M. L. Eisen, J. A. Quas, & G. S. Goodman (Ed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the forensic interview* (pp.

- 331-354). Mahwah, NJ: Erlbaum.
- Friedman, W. J. (1992). Children's time memory: The development of a differentiated past. *Cognitive Development, 7*, 171-187.
- Friedman, W. J. (2000).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the times of future events. *Child Development, 71*, 913-932.
- Friedman, W. J., & Lyon, T. D. (2005). The development of temporal-reconstructive abilities. *Child Development, 76*, 1202-1216.
- Friedman, W. J., & Seely, P. B. (1976). The child's acquisition of spatial and temporal word meanings. *Child Development, 47*, 1103-1108.
- Goodman, G. S., Bottoms, B. L., Schwartz-Kenney, B. M., & Rudy, L. (1991). Children's testimony about a stressful event: Improving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1*, 69-99.
- Goodman, G. S., Quas, J. A., Batterman-Faunce, J. L., Riddlesberger, M. M., & Kuhn, G. (1997). Children's reactions to and memory for a stressful event: Influences of age, anatomical dolls, knowledge, and parental attach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 54-75.
- Gordon, B., Ornstein, P. A., Nida, R., Follmer, A., Creshaw, C., & Albert, G. (1993). Does the use of dolls facilitate children's memory of visits to the docto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7*, 459-474.
- Greenhoot, A. F., Ornstein, P. A., Gordon, B. N., & Baker-ward, L. (1999). Acting out the detail of a pediatric check-up: The impact of interview condition and behavioral style on children's memory reports. *Child Development, 70*(2), 363-380.
- Kulkofsky, S., & Klemfuss, J. Z. (2008). What the stories children tell can tell about their memory: narrative skill and young children's suggest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4*(5), 1442-1456.
- Kulkofsky, S., Wang, Q., & Ceci, S. J. (2008). Do better stories make better memories? Narrative skills and memory accuracy in preschool childre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2*, 21-38.
- Lamb, M. E., & Brown, D. A. (2006). Conversational apprentices: Helping children become competent informants about their own experienc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15-234.
- Lamb, M. E., Orbach, Y., Warren, A. R., Esplin, P. W., & Hershkowitz, I. (2007). Enhancing performance: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veness of young witnesses.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indsay (Eds.), *The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ume: Memory for events* (pp. 401-42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yon, T. D., Malloy, L. C., & Quas, J. A., & Talwar, V. (2008). Coaching, truth induction, and young maltreated children's false allegations and false denials. *Child Development, 79*, 914-929.

- Malloy, L. C., & Quas, J. A. (2009). Children's suggestibility: Areas of consensus and controversy. In K. Kuehne & M. Connell (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pp.267-297). Hoboken, NJ: Wiley.
- Melnyk, L., Crossman, A. M., & Scullin, M. H. (2007).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 Lindsay (Eds.),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 1.: Memory for events* (p.401-427). Mahwah NJ: Erlbaum.
- Merritt, K. A., Ornstein, P. A., & Spicker, B. (1994). Children's memory for a salient medical procedure: Implications for testimony. *Pediatrics*, 94(1), 17-23.
- Nelson, K., & Fivush, R. (2004).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A social cultural development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11, 486-511.
- Orbach, Y., & Lamb, M. E. (2007). Young children's references to temporal attributes of allegedly experienced events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Child Development*, 78, 1100-1120.
- Piaget, J. (1971). *The child's conception of movement and speed*. New York, Ballantin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27).
- Pipe, M-E., & Salmon. K. (2002). "What Children Bring to the Interview Context: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vent Reports." In M. L. Eisen, J. A. Quas & G. S. Goodman. (Ed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the Forensic Interview* (pp.235-61). New Jersey: Erlbaum.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9). *Measuring up? Evaluating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ommitments to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NSPCC: London.
- Principe, G. F., & Smith, E. (2008). The Tooth, The Whole Tooth, and Nothing But the Tooth: How Belief in the Tooth Fairy Can Engender False Memor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2, 625-642.
- Quas, J. A., Malloy, L. C., Melinder, A., Goodman, G. S., Schaaf, J., & D'Mello, M. (2007).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repeated interviews and interviewer bias on young children's event memory and false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823-837.
- Roberts, K. P. (2000). An overview of theory and research o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In K. P. Roberts & M. Blades (Eds.), *Children's source monitoring* (pp.11-57). Mahwah, NJ: Erlbaum.
- Roebbers, C. M., & Schneider, W. (2001). Memory for an observed event in the presence of prior misinformation: developmental patterns in free recall and identification accurac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07-524.
- Salmon, K., Roncolato, W., & Gleitzman, M. (2003). Children's reports of emotionally laden events: Adapting the interview to the chil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65-7.
- Saywitz, K. J., Jaenicke, C., & Camparo, L. (1990). Children's knowledge of legal terminology, *Law and Human Behavior*, 14, 523-535.
- Saywitz, K. J., Snyder, L., & Nathanson, R.

- (1999). Facilitat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child witnes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58-68.
- Saywitz, K. J., & Lyon, T. D. (2002). Coming to grips with children's suggestibility. In M. Eisen, G. Goodman, & J. Quas (Ed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the forensic interview* (pp. 85-113). Hillsdale, NJ: Erlbaum.
- Schreiber, N. & Parker, J. F. (2004). Inviting child witnesses to speculate: Effects of age and interaction on children's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9(1), 31-52.
- Strange, D., Garry, M., & Sutherland, R. (2003). Drawing out children's false memor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607-619.
- Tartas, V. (2001). The Development of Systems of Conventional Time: a Study of the Appropriation of Temporal Locations by Four-to-Ten Year Old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6(2), 197-208.
- Taylor, M., Shawber, A. B., & Mannering, A. M. (2009). Children's imaginary companions: What is it like to have an invisible friend? In K. Markman, W. Klein, & J. Suhr (Eds.) *The handbook of imagination and mental simulation* (pp.211-224). New York: Psychology Press.
- Thierry, K., Lamb, M. E., Orbach, Y., & Pipe, M. E. (2005).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function and use of anatomical dolls during interviews with alleged sexual abuse victi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1125-113.
- Tobey, A. E., & Goodman, G. S. (1992). Children's eyewitness memory: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forensic context. *Child Abuse and Neglect*, 16, 779-79.
- Waterman, A. H., Blades, M., & Spencer, C. P. (2004). Indicating when you do not know the answer: The effect of question format and interviewer knowledge on children's 'don't know' respons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35-148.
- Zajac, R., & Hayne, H. (2003).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9, 187-195.
- 1 차원고접수 : 2012. 11. 1.  
심사통과접수 : 2012. 11. 11.  
최종원고접수 : 2012. 11. 28.

##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of Children's Testimony: Focused on Language and Cognitive Capacities**

**Seungjin Le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Unfortunately,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are subjected to sexual or physical abuse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the worldwide. Increased awareness of such issue has resulted in many children coming forward to testify regarding what they have witnessed or experienced. However, compared to adults, children are seriously vulnerable to various types of influences when providing elaborate reports of their experiences. For example, children's reports are affected by sever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abilities to communicate, concepts of time, differentiating between fantasy and reality and so forth. Indeed, extensive empirical evidence in this field has supported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developmental capacities and limitations in children's testimony and yet there has been few articles to review what we currently know about the capacities and limitations of children's testimony with developmental perspective. Thu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solidate the body of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variables impacting on children's testimony. Ultimately, it would be helpful for interviewers and legal professional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ensure the optimal conditions for children to deliver accurate and detailed accounts of their past experiences.

*Key words : language development, fantasy thinking, time comprehension, suggestibility, individual characteristics*